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9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5일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호남 '결집'·영남 '확산'…이재명, 거침없는 상승세

尹 탄핵 으로 '정권교체' 명분 뚜렷… 선거법 여파에도 꺾이지 않아
호남 유권자에 '유일한 대안'…민생 행보로 '보수 표심'까지 흔들어

대선 D-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적으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결집 양상이 두드러져 이같은 흐름이 다음달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면〉

다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 투표율과 득표율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1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주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2주차부터 꾸준히 우세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4월 2주차 48.8%, 3주차 50.2%, 4주차 48.5%, 5월 1주차 46.6%, 2주차 51.6%, 3주차 50.2%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결속력을 확인시켰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 광주·전라 응답자들은 4월 2주차 62.8%, 3주차 65.6%, 4주차 60.3%, 5월 1주차 69.0%, 2주차 74.3%, 3주차 74.1%로 70%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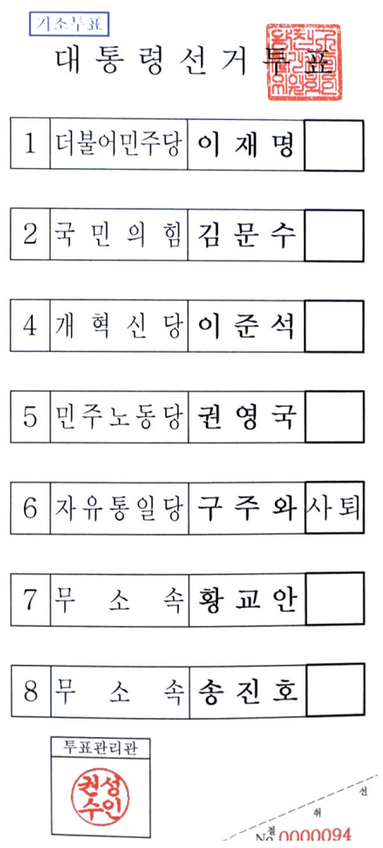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4월 4주차에 이 후보의 지지세가 소폭 하락한 것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보도 등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잠깐의 하락 후 곧바로 반등한 이 후보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번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전체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후보의 지지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승승장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의 명분이 분명해진 점, 보수 야권의 '리더'가 공백인 점, 진영과 관계없는 이 후보의 지지 호소가 이어진 점 등이 유권자 결집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 지지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탄핵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정권 심판 기류와 함께 이 후보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대 대선 거소투표용지.

이 후보는 최근 민생·개헌·정치 개혁 등 호남뿐 아니라 전국과 중도 지지층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 확장성을 강화 중이다.

이같은 이 후보의 광폭 행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대구·경북 응답자 중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답변은 4월 2주차 36.3%에서 3주차 33.4%, 4주차 26.3%로 계속 추락했지만 5월 1주차부터 33.6%, 2주차 37.2%, 3주차 43.5%로 꾸준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 흐름이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진영 내 리더십 혼선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는 등 이 후보의 지지세가 전국적인 추세로 전환되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이 흐름으로 '반윤(반윤석열) 정서'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야권 대표'를 강조하면 대선 구도에서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면으로 계속

/특별취재단=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초등학생들이 21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70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사적지, 국가 사적지 되나

광주시 '5·18계승 국가프로젝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포함

광주시가 제안한 '5·18정신계승 국가프로젝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발표한 광주시 '7대 핵심공약' 중 4번째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선언'에 국립 망월동 5·18민주공원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에는 5·18구묘역에 역사관 건립 등 국립 망월동 5·18민주공원 조성과 노벨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 의 주요 배경인 광주 5·18 주요 사적지의 보존·활용이 담겼다.

광주시가 민주당에 제안한 5·18 사적지 지정,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존과 활용안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총 29개로 5·18기념재단이 '오월길' 탐방로로 운영하고 있다. 사적지 앞에는 횃불 모양을 상징하는 원형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5·18사적지는 모두 광주시가 지정해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5·18 사적지 중 일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고, 일부 사적지의 경우 관리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505보안대와 옛 광주교도소, 옛 국군광주병원의 경우 활용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활용 논의만 무성할 뿐 사적지는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 사적은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큰 곳의 경우 국가 유산으로 등재돼 사적으로 관리 된다.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었고 헌법전문에 수록에 이견이 없는 만큼 5·18 사적 또한 국가 사적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광주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당 선거캠프에 5·18사적지를 국가주도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편, 현재 국가 사적은 경주 포석정부터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까지 총 563건에 달하지만 광주지역 사적은 충효동 요지와 신창동 유적 2곳 뿐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NO 쇼'에 'NO 대책' 자영업자 '한숨' ▶6면
KIA 루키 김태형·이호민 '성장의 시간'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제주 메밀꽃 명소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